

吳 師 機 의 外 治 法 에 大 한 研 究
- 〈理 論 駢 文〉 中 〈續 增 略 言〉 을 中 心 으 로

진재홍 · 최인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부과학교실

TA Study of External Therapy by Wu Shi-Ji
-Translation and Analysis on 〈續增略言, xu-zeng-lue-yun〉
in 〈理論駢文, li-yao-pian-wen〉

Jae-Hong Jeon · In-Hwa Choi

Objectives : In order to comprehend and utilize external therapy, we considered that we needed to research Wu Shi-Ji who was a medical specialist of external therapy. We looked at the special study on external therapy in his book, 〈li-yao-pian-wen〉, especially 〈xu-zeng-lue-yun〉; in this part his general approach to external therapy was well-detailed.

Methods : We translated and analyzed 〈xu-zeng-lue-yun〉.

Results : In 〈xu-zeng-lue-yun〉, he gives a supplementary explanation about the insufficient attention paid to external therapy, 膏(gao) - 嚏(ti) 坐(zuo) 熨(yu) 抹(mo) 纏法(chan fa), through San Jiao(三焦). And he insisted on his conception of external therapy: ointment(膏) and the method of sneezing(嚏), sitting on herbs(坐), steaming or attaching herbs patients's navel(熨), rubbing(抹) and binding(纏), based on 〈nei-jing〉 and 〈shang-han-lun〉. He put forward the general rules of external therapy using those methods. And through 〈xu-zeng-lue-yun〉, he explained that the efficacy of his external therapy was basically the same as internal therapy and medicine, the only difference was in the method. In addition, this external therapy has some merits when compared with internal medicine. First, it's easier to diagnose a disease and treat patients compared to internal medicine. For instance, when a patient has a problem with his abdomen, we just have to diagnose a disease of the abdomen and treat using one method of external therapy on the abdominal area. Second, external therapy has fewer side effects. And third, we can utilize the meridian theory when we use external therapy.

Conclusions : Through 〈xu-zeng-lue-yun〉, we basically understood his conception of external therapy. Although more research is needed, we suggest that we need to enlarge our usage of external therapy, not just confine ourselves to smaller areas of focus. His point of view suggests that external therapy is not merely an adjunct to internal therapy, but an interdependent course of study and action in its own right.

Key words : Aexternal therapy, Wu Shi-Ji, <xu-zeng-lue-yun>

교신저자: 최인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안이비인후부과
(Tel. 02-3416-9735 E-mail: inhwajun@hanmail.net)

서론

《理論駢文》은 清代 吳師機의 저작으로 《外治醫說》이라고도 하는데 《外治醫說》이라는 서명에서 나타나듯이 외치 전문서이다. 外治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겸한 서적으로 의학사에서 중요한 저작으로 여겨지고 있으나¹⁾, 駢文으로 기록되어 있어 보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고 영향도 크지 못하였다²⁾. 《理論駢文》은 〈略言〉, 〈續增略言〉, 〈理論駢文〉, 〈存濟堂藥局修合施送方并加藥法〉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기 출간된 시기가 다르다³⁾. 이 중 〈續增略言〉은 편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론 역할을 하는 〈略言〉을 보완하는 부분이다. 또 시기적으로는 《理論駢文》에서 가장 마지막에 저술된 부분으로, 《理論駢文》의 출간 후에 개론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신의 외치법에 대해 설명하고, 비난에 대해서 예시 및 근거를 들어서 반론을 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續增略言〉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자의 외치법에 대한 사상을 잘 살펴 볼 수 있다.

외치법은 의학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제형의 다양화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理論駢文》 중의 〈續增略言〉을 통해 吳師機의 外治法에 대해 다소간의 知見을 얻었고, 이를 통해 外治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I. 연구 방법

《理論駢文》(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校注書인 《理論駢文》(吳師機 著 步如一 等 校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을 참고로 하여 〈續增略言〉의 내용을 번역하고 총괄하였다.

II. 연구 내용

1. 〈續增略言〉의 著作動機

〈續增略言〉은 吳師機가 《理論駢文》을 저술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저술하여 덧붙인 글이다. 《理論駢文》이 淸 同治3年(1864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몇 차례의 간행을 거친 후에 〈續增略言〉은 同治 11年(1872년)에 덧붙여져 간행되었다³⁾. 吳師機는 《理論駢文》이 駢文體라는 읽기 어려운 문체로 구성되어있고 인용이 섞여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略言〉을 적어서 大義와 要點을 제시한다고 의도를 밝혔고⁴⁾, 〈續增略言〉에서는 “藥과 膏를 사용하는 法을 駢文과 略言에서 大概를 기술하였는데, 오직 經旨를 闡發하지 못한 것이 있다. ... 어떻게 하면 내치와 외치를 通貫하는 이치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특별히 상세하게 經文을 인용하여 分別하여 證明하였다.”라고 하여 《理論駢文》과 〈略言〉을 통해서 外治法을 설명하였고 출간 후 반응을 지켜본 후에 外治法이 內治法의 이치와 같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부연하기 위해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續增略言〉의 내용

〈續增略言〉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膏 의의 외치법에 대해 보충하여 三焦를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두 번째로 吳 師機가 同人들과의 問答과 討論을 모아 자신의 외치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자신의 외치법에 대한 비난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고, 네 번째로 외치법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범을 설명하였다.

1) 膏 의의 외치법에 대한 설명

吳師機는 <略言>에서 “熬者曰膏 撮者曰藥”이라 하여 膏와 藥(膏 의의 외치)을 나누었는데, 자신의 임상에서는 膏를 주로 하고 藥을 輔助로 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서로 병행해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續增略言>에서는 膏 의의 외치법에 대해 膏 의에 噤坐熨抹縛五法이 있고 이를 통해 膏를 보조하였다고 밝혔다. <略言>에서는 膏 의의 외치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이들 또한 독자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膏의 제형적인 한계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續增略言>에서 상세히 보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吳師機는 膏 의의 외치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理致가 내복약과 상통하고 膏가 穴位를 통해 貼付하는 것과 달리 五官, 臍, 二陰 등의 竅를 통해 치료하지만 氣로서 相感하는 것이므로 또한 外治에 속한다고 하였다. 吳師機는 외치법을 시술할 때 三焦를 중요시하였는데, 膏 外의 외치법에 대해서도 三焦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 上焦

吳師機는 上焦에는 주로 噤法을 사용하였다. 噤法은 藥을 細末하여 窠속에 붙여넣어 재채기를 통해 발산시키는 것으로 上焦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였다.

噤法의 作用은 재채기를 하게 되면 腠理가 스스로 풀리니 解肌가 되고, 눈물과 콧물과 痰涎이 더붙어 나오게 되어 胸中의 悶惡가 풀리니 吐法이 된다고 하며, 噤法 하나가 汗法과 吐法을 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선현들이 傷寒 中風 時疫 溫症 喉風 赤眼 牙疼 등에 噤藥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곧 病이

在上하면 從上出하는 것이라 하였다.

使用藥物에 대해서 噤法의 특성상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皂角 細辛을 爲主로 하고 藜蘆 躑躅花를 引藥으로하여, 症에 따라서 藥을 가한다고 하였고, 또한 噤法을 사용할 때에는 藥이 氣道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含水해야 한다고 하였다.

噤法이 內服藥과 相通하는 예로 王好古가 傷寒에 藿香 藜蘆 躑躅花를 研末하여 噤鼻한 경우를 들어, 이 경우에 藿香正氣散을 대신 사용할 수 있고, 不換金正氣散을 合할 수 있으며, 겨울의 正傷寒 頭痛의 경우에는 麻黃湯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즉 內服하는 이치와 같이 임상증상에 따라 用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噤法을 變通하는 法에 대하여, 먼저 治法의 側面에서는 噤法이 上焦에만 작용하여 汗吐法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生理機轉에 따라서 升提하거나 下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升提하는 것에 대하여 外感和 泄瀉를 겸한 경우와 腸出不收하거나 產婦가 子宮不收한 경우를 들어 噤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下하는 것에 대하여 여름의 濕病에 瓜蒂 赤小豆를 噤鼻하면 淸肺金하여 水自下하고, 小便不通에 探吐하여 提氣하면 水自下한다하였다.

方法의 側面에서 噤法의 變形된 形態로 塞鼻法과 吸法을 소개하였다. 塞鼻法은 噤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濕紙로 包藥하여 塞鼻하는 것으로 喉閉하여 不能下藥하는 경우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를 사용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吸法은 藥을 끓여서 증기를 들이 쉬는 것으로 虛人이나 血虛頭痛, 產婦 등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또한 上焦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塗頂 覆額 罨眉心 點眼 塞耳 擦頂及肩 扎指 握掌 敷手腕 塗臂 등의 法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臍中과 背心은 上焦의 要穴로 治病의 握總之處라 하였고, 太陽穴은 “頭痛者所必治”라 하여 중요시 하였다.

(2) 中焦

吳師機는 中焦에는 주로 縛法과 熨法을 사용하였

다. 縛法은 약을 자르고 거칠게 갈아서 炒해서 쪼이 나게 한 후 명주 천에 싸서 배꼽 위에 묶어 두는 것으로, 中焦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였다.

縛法의 예를 들어 古方에 風寒을 치료 할 때 葱姜 豉 鹽 등을 炒熱하여 臍上을 덮었고, 霍亂에 炒鹽하여 臍上에 두고 碗을 덮어 두는 경우를 들었다. 또한 縛法 역시 內服藥과 相通함을 들어서, 痢에 平胃散을 炒熱하여 臍上한 경우와 虐에 常山飲을 炒熱하여 臍上한 예를 들고 나서, 어떠한 病과 方을 막론하고 모두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外治法이 비록 人體의 外部에서 시술하나 氣로서 相感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黃疸을 치료할 때 百部根을 臍上에 두고 酒와 糯米飯을 덮는데, 口中에 酒氣가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乾薑 白芥子를 敷臍할 때에는 口辣하면 제거한다라고 하여, 비록 臍를 통해 入하나 口中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熨法은 대개 藥으로 餅을 만들어 臍上에 두고 熱을 가하는 것으로, 藥力을 밀어 넣고 그 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또한 熨法이 患者의 상황이나 病의 상황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中焦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熏臍 蒸臍 填臍 布包輪熨 등의 法이 있다고 하였다.

(3) 下焦

吳師機는 下焦에는 주로 坐法을 사용하였다. 坐法은 藥을 研末 또는 炒하거나 혹은 증상에 따라 劑型을 만들어 천에 싸서 坐하는 것으로, 下焦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였다. 예로 水腫에 蔥一斤을 찢어서 坐身下하면 水從小便出하고, 水瀉不止에 艾一斤을 坐身下하여 微火로 脚을 따듯이 하면 瀉自止라고 하였고, 婦人의 癆症에 燒熱한 벽들에 藥水를 떨어뜨리고 이것을 천으로 감싸서 坐法을 하는 지금의 坐熏과 같은 예도 들었다.

또 坐法의 長點을 들어서 內服藥이 達到하지 못

하는 경우, 胃氣를 상할까 두려운 경우, 治下焦하는 데 上中焦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上病에 마땅히 釜底抽薪해야 할 경우에는 坐法이 낫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를 들어, 鼓腫과 秘結의 경우에 煎藥水를 桶에 넣고 坐熏하는 경우에 峻藥을 사용하여도 傷元氣하지 않고, 久痢로 虛한 경우나 血崩脫肛한 경우에 升藥을 사용하지 못하나 補中益氣湯으로 坐熏할 수 있고, 產婦가 陰脫한 경우 四物湯에 龍骨과 麻油를 가하여 熏洗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下焦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摩腰 暖腰 兜肚 命門 臍下 膝蓋 腿彎 腿肚 脚跟 脚指 足心 등의 諸法이 있다고 하였다.

총괄하여 비록 上中下 三焦로 治療를 部位에 따라 나누었으나 部位에 局限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뒤에 外治總綱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였다.

2) 同人들과의 問答과 討論

이 부분은 吳師機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同人들과의 問答과 討論을 서술하였는데, 자신의 外治法에 대한 경험과 견해가 나타나있다. 먼저 膏의 作用과 用藥, 制法, 加藥法, 內服處方의 外治法, 外治法을 行할 때의 道, 鍼灸按摩와의 관계, 老人 婦人 小兒에 있어서 外治法, 臟腑治療에 있어서 外治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外治法의 長點을 설명하면서 內治法의 어려움과 문제점, 誤治의 危險性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 膏의 作用

膏의 作用에 대해서 “一是拔 一是截”이라 하였다. 이는 病이 結聚한 곳에는 拔하면 病이 스스로 나오게 되어 內陷하지 않고, 病이 경유하는 곳에는 截하면 病邪가 스스로 끊어져 妄行하여 傳變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膏를 시술하기 앞서 病의 結聚之處와 經由之處를 반드시 파악하여 그 곳에 膏를 사용하여야만 膏가 治療의 作用을 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膏가 病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개미구멍이 결국

堤防을 무너뜨리는데 그 구멍을 알아서 막게 되면 堤防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여 膏가 정확한 곳에 作用함으로써 전체적인 病을 치료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이 곧 그가 말한 ‘適其所’인 것이다. 즉 膏의 作用이 膏가 가지고 있는 藥理作用 뿐 아니라 治療하는 部位의 正確性和 더불어 病理의 理解와 診斷의 正確性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膏가 補하는 작용도 할 수 있는데 이는 ‘補’가 ‘養’과는 다르고, 五行의 克에 있다고 하여 膏가 비록 服用하는 것은 아니나 五臟의 均衡을 통해 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膏의 用藥과 制法

吳師機는 膏의 用藥이 湯頭가 “主專治 分六經 用藥一病一方, 日可一易, 故其數精而少.”하는 것과는 달리 膏는 “主通治. 統六經, 用藥百病一方, 月才一合, 故其數廣而多.”라 하였다. 이러한 膏의 通治하는 用藥 및 制膏의 特性에 대해서 《略言》에서 설명하였는데, “藥은 단지 走一經 治一症하지 않으니, 匯集하여 統括할 수 있으니, ... 防風通聖散이 表裏雙解하며 風熱燥 三症를 치료하고, 五積散이 內로는 臟腑와 外로는 皮毛經絡, 위로는 頭項으로 아래로는 腰脚, 婦人의 調經까지 사용하지 못할 곳이 없고, ... 膏藥 또한 이러한 뜻에 根本을 두고서 類推하여 擴大할 수 있으니, 百病을 치료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要之人病不外氣滯血凝及陰有寒濕 陽有燥熱而已.”라 전제하고, 病機十九條의 예를 들어 病을 統括할 수 있으니 藥 또한 統括할 수 있고, 膏藥을 만드는 것 또한 그 要点을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握要之道一通字該之. 理通則治自通矣.”라 하여 理致를 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⁴⁾. 이렇듯 吳師機는 膏라는 劑型의 性格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用藥을 통해 膏의 特性을 최대한으로 擴張하여 使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用藥의 特性은 制膏法을 통해 또한 잘 드러난다.

吳師機는 制膏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먼저 자신이 膏를 학습하였던 過程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吳師機는 처음에는 原方을 따라서 膏를 만들다가 外治法과 內治法이 같은 이치임을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 후에 湯頭에서 本方에 藥을 加味하는 것을 보고서 膏에 藥을 가미하고, 桂麻各半湯과 여러 偶方 復方 등을 참고하여 점차 處方을 중복시켜 더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制膏한 規則에 대해 古人의 “極則變, 合則化, 有交養, 無偏勝, 母子相及, 手足相關, 徹上徹下, 隔二隔三, 或總或合, 或通或移之義”를 유추하고 확장하여, “原其所從來, 究其所從極, 審其有餘, 察其不足, 豫事以防患, 廣略以取勝.”한 후에, “同則相統, 雜則相并. 寒佐熱佐, 通用塞用.”하게 되면, “陰陽上下升降不膠于治, 表裏溫涼補瀉之藥成備.”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膏가 性緩하고 無力하지 않도록 猛藥 生藥 香藥을 빌어서 나머지 여러 약들을 이끌게 하여 開結行滯하고 病所에 直達하게 하면 효과가 나타나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게 된다고 하며, 膏의 작용이 곧 氣血流通 하나로 歸結되니 病이 스스로 낫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吳師機는 制膏法에 대해서 後學들에게 우선 先賢의 法에 충실하도록 권유하며, 특히 仲景의 方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仲景의 方이 藥이 峻厲하고 分量이 많아서 위험하여 지금의 사람들이 他藥으로 대신하거나 分量을 줄이는데, 이는 仲景의 본 뜻이 아니니, 合하여 膏를 만들 때 비율을 지키고 仲景의 法을 따라서 加減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仲景의 方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질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효험이 입증된 處方 중에 一方을 爲主로 湯의 君藥처럼 하고, 二方 三方을 湯의 臣 佐使藥으로 한 후, 이들 처방을 “風歸風, 寒歸寒, 溫熱歸溫熱, 暑濕歸暑濕, 氣歸氣, 血歸血, 痰歸痰, 積歸積, 水歸水, 火歸火, 心肝脾肺腎各歸其臟, 膽胃大小腸膀胱三焦各歸其腑.”의 기준을 통해 서로 모으면 그 중에 “有散有斂, 有清有溫, 有涼有熱, 有功有補”하게 되고 이를 博聞多識者에게 검증을 받는다. 이렇게 되

면 “分別之中, 各方各具包貫之理, 斯爲精括”하게 되니, 이렇게 구성된 膏方 중에 平淡無力한 藥을 去하여 他方の 力厚한 藥으로 바꾸고, 여기에 引藥을 加하고 分量을 크게 한다고 하였다. 이 방법에 대해 吳師機는 비록 일반적인 방법지만 “然是制膏之權輿, 又膏爲正宗”이라고 하여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익숙해지고 난 후에 仲景의 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 加藥法

加藥하는 것은 觀音膏에서 甘草를 搗敷하고, 霏云膏에서 巴豆를 納劑하고 다시 膏를 덮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였듯이, 加藥하는 것은 膏를 施治할 때 糝藥이나 敷藥을 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吳師機는 加藥之法이 臨症에 따라 活變함에 달려 있어 刻舟求劍할 수 없고, 仲景諸方の 加藥하는 의미가 膏를 사용하는데도 기준이 될 만하니 仲景의 法을 따르라 하였다. 또 참고할 만한 자료로, 《雷公藥性賦》, 東垣藥例, 東垣十二劑, 東垣臟腑溫涼補瀉之藥, 東垣引經藥 등과 醫書의 用藥大法 등을 참고할 만하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加藥法 또한 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內服處方的 外治法

吳師機는 內服處方으로 外治하는 것에 대해서, 內服方은 煎抹炒熨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니, 醫理에 어긋나지 않고 이 또한 外治의 一門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또한 變하였으나 그 바름을 잃지 않았으니, 이 또한 內治와 外治의 理致가 같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煎抹炒熨하는 膏 外的 外治法이 《素問 至真要大論》의 “摩之浴之”에서 비롯되었고, 예를 들어, 古方에서 傷寒陰毒을 치료하는데 葱熨法이, 傷寒陽毒을 치료하는데 水漬法이, 二便不通을 치료하는데 有陰陽熨法이 있는데, 이들 症이 危險이

이미 甚한 상태인데도 外治法을 시행하였으니, 陰寒陽熱의 諸症에 모두 응용할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理致로 症을 살펴서 前胸 後背 臍眼 對臍 大小腹 등에 사용하면, 發散 消導 推盪 補益할 수 있고, 腫痛之病에 患處에 사용하면 消腫定痛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處方에 대해 仲景方부터 諸家の 傳方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 處方 중에서 한 가지나 몇 가지 藥味를 取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膏와 并行하여 사용함에도 전혀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5) 外治法을 行할 때 注意點

吳師機는 먼저 醫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臟腑를 볼 수 없음이라고 전제하고, 醫師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충 치료하여 자신과 남을 속이는 행태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內治法의 高醫를 흠모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의 재능이 선현에 미치지 못하여 경험이 깊어질수록 자신감이 없어져 不得不 內治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背景을 먼저 말하고 그는 外治法을 행할 때 注意點에 대하여 “惟是治分內外 而讀書明理則一”임을 강조하고, 理를 通하면 辨症이 明白하게 되니 여기에 古人的 處方用藥한 意圖를 겸하게 된다면 膏를 사용하여 薄貼하고, 藥을 사용하여 糝敷하고, 湯頭를 사용하여 煎抹炒熨하는 모든 것이 道에 맞게 되어 應手得心하게 되니, 內外를 一貫하는 妙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理致에 밝지 않으면 誤治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外治에 있어서 良醫가 되는 것이라 밝히고, 또한 자신의 意圖가 內治法의 부족한 부분을 外治法이 보충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전해줌에 있으니 內治를 하는 者와 外治를 하는 者가 서로 험뜯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6) 鍼灸按摩과 外治法

吳師機는 “外治法 鍼灸最古”라고 하였다. 그러나 鍼灸는 禁忌가 많이 있기 때문에, 炒熨煎抹法이 鍼

灸按摩를 대신할 수 있고, 오히려 症을 보고 用藥하는 것에 있어서 精切簡便함은 鍼灸按摩보다 낫다 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外治法을 “察其陰陽 審其虛實 推而納之 動而伸之 隨而濟之 迎而奪之 泄其邪氣 養其精氣”하는 鍼灸理論과 運手法을 炒熨煎抹法에 응용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7) 老人 婦人 小兒의 外治法

吳師機는 老人 婦人 小兒에게 있어서는 생리적인 특성상 반드시 外治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老人의 경우 老人은 氣血兩衰하니 不能勝藥하기 때문에 峻烈한 藥을 사용하면 目前에서는 효과가 있는 듯하나 後에 變하여 他病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고, 外治 또한 和平한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婦人의 경우 積冷 痛經 子宮冷하면 難生育하는데 忌熱藥하니, 痛經에는 玄胡索 當歸 吳茱萸 川椒 등을 炒熨하고, 子宮이 冷한 경우는 蛇床子를 煎湯하여서 자주 씻고, 安胎할 경우에는 葱을 搗敷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특히 難産의 경우에 催生膏를 사용하여 卓效를 보았다고 하였다.

小兒의 경우는 純陽之體이기에 暖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臟腑가 未堅하기 때문에 藥을 잘 못 받아들인다 하였다. 그래서 初生兒에게는 鷄蛋清擦法을, 風寒을 치료할 때는 疏表法을, 急驚風을 치료할 때는 蜂蜜擦法을, 痘症을 치료할 때는 麻油擦法 葱菜熏法 柳枝浴法 酒鷄敷法 등을 유추하여 응용할 만하다 하였다.

(8) 臟腑病의 外治法

臟腑의 病을 治療하데 있어서 膏를 쓰는 方法이 우수한 이유가 內服藥처럼 胃를 통해 들어가지 않는 점을 들었고, 이것이 “經所謂適其所是也”라 하였다.

臟病의 治療에 있어서 膏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먼저 心病神不歸舍한 者의 경우와 心病不寐한 者의 경우를 들어서, 服藥하게 되면 胃로 入하고 다시 胃에서 分布하니

散而不聚하여 膏藥과 같지 못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腎消의 경우와 少陰氣厥舌瘡한 者의 경우를 들어 服藥하게 되면 上焦로부터 下焦에 도달하는데 膏藥의 지름길로 질러가는 것만 못하고, 또한 膏藥은 引火하고 또한 鎮風하여 一法兩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治療方法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內經》의 ‘臟病止而不移 其病不離其處’하는 것에서 膏의 貼法이 나왔음을 밝혔다.

또한 膏의 腑病의 治療에 대해서도 《內經》의 ‘上下行流 居處無常’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膏를 사용하여 逼之하면 在上한 것이 스스로 移于下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서 陷胸湯과 承氣湯을 分用하면 結胸이 能開하는데, 여기에 炒熨 煎抹 盤旋 摩蕩 등의 法을 더하면 通하는 것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9) 誤治의 危險성과 內治法의 短點 吳師機는 誤治를 판결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에 비유하여, 醫師의 誤治에 대해 경계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二十年 동안 膏藥을 專用하고 內治를 망령되어 행하지 않은 것이 誤治의 危險性 때문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內治法의 問題點을 지적하였다. 먼저 內治法이 嚴密하지 못함을 말하여, 첫째로 用藥의 正確性 與否에 대해, “藥之能到與否”라 하여 藥이 到達하는가의 문제, “或上或下或左或右 恰當其位”라 하여 藥이 合當한 位置에 가는가의 문제, “中病與否 不犯無故否”라 하여 病에 藥이 적중하는가와 다른 곳을 犯하지 않는가의 문제, “分量之輕重多寡 或過或不及”라하여 藥의 量이 적당한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內服藥이 모두 胃를 통해서 흡수되어 病소에 도달하니 반드시 藥性이 發해야만 비로소 誤治與否를 알게 됨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誤治가 항상 있어 왔음을 말하고, 만일 誤治를 알고서 구하려 하여도 한 번 들어간 藥을 없앨 수 없고 다행히 解毒하더라도 이미 藥으로서 攻藥하니 元氣가 소모된다고 경고

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가 단지 한 사람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으니, 의사나 환자나 모두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세 번째로 內治法을 사용할 때 임상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해, “內治法을 사용하려 하여도 臟腑를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醫理에 밝아도 臨床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기 힘들다. 비록 切診과 望診에 능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더라도 臟腑가 말을 하지 않기에 是非와 得失을 끝내 명확하게 결단하기 어렵다. ... 만약 터럭만큼의 실수라도 나중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內治法의 短點에 비해 外治法은 “外治에서 능히 臟腑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病이 있는 곳은 각기 그 位置가 있고, 각기 그 名稱이 있으며, 각기 그 形態가 있는 것이다. 位置라는 것은 陰陽이 定해지는 것이고, 名稱이라는 것은 같고 다름이 判斷되어지는 것이고, 形態라는 것은 吉凶을 나타내는 徵兆이다. 位置는 移動할 수 없고, 名稱은 變될 수 없고, 形態는 가릴 수 없으니, 이것이 곧 臟腑가 나에게 告하는 것이다. 곁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안에 있는 것이다. 按其位 循其名 核其形 하여서 病을 취하고 이로서 病을 치료하게 되면, 비록 皮膚가 막혀있지만 毛竅가 통하니 臟腑를 볼 수 없더라도 바로 臟腑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病을 보는 것에 완전하지 못함이 있으니 피부에 조그맣게 시험해 본다면, 臟腑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 하여 外治法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3) 外治法에 대한 非難에 대한 反論

(1) 外治法의 日常性和 必要性

外治法이 괴이한 도로서 세상을 속이는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먼저 吳師機는 外治法이 일상적인 것이고, 먹는 것을 除外한 모든 것이 外治를 할 수 있는 手段임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른 氣溫의 變化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도, “새벽에 얼굴을 마찰하는 것은 和血

氣하여 升陽益胃하는 것이다. 洗眼은 臟腑精華를 滋潤하여 翳障을 거두는 것이다. 漱齒는 堅骨하여 蟲齒를 막는 것이다. 流髮하는 것은 消風散火하는 것이다. 飲食을 먹고서 배를 摩擦하는 것은 脾의 運化를 도와서 積滯를 막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에 濯足하는 것은 三陰이 모두 발에서 始作하니 발가락이 차게 되면 또한 足心을 따라 들어오게 되니 濯足하여 溫陰하여 去寒 하는 것이다.”라 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行爲들도 외치라 하였다. 또 “七情으로 인한 病에 꽃을 보면 마음의 근심이 풀리고, 音樂을 들으면 슬픔이 사라지니 약을 먹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 하여 音樂을 듣고 꽃을 보는 것 또한 外治라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老人 小兒 婦人에게 있어서 외치법이 반드시 필요하였음을 지적하여 “老人에게 疾病이 있으면 또한 藥餌를 기대할 수 없으니, ... 婦人 妊娠하고 出産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小兒에 있어서 斷乳나 種痘에는 전적으로 外治하며, 예로부터 內服하는 方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으니, ... 만약 外治法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찌 內服方을 내놓지 않는가?”라 하였다. 또한 《洗冤錄》의 五絶教法의 예를 들어 “대개 복약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그 기술이 역시 窮僻해지는 것이다. 무릇 絶證을 外治法으로 구할 수 있다면, 絶證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여 응급질환에 外治法이 반드시 필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2) 先賢들의 法을 통한 外治法의 根據

外治法이 前賢이 崇尚하는 바가 아니어서 그 法이 未備한 것이 많다는 비난에 대해, 吳師機는 “前賢들의 相傳之法을 내가 진실로 존중하고 따르나, 前賢들이 傳하지 않는 法은 나 역시 變通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 《略言》의 序頭에서도 그는 《周易》에서 ‘窮則變 變則通’이라 하였음에도, 지금 보면 湯液과 鍼灸는 變하기도 通하기도 못하였는데 비해, 膏藥은 과거에 어

긋나지 않고 현재에 이로운 것이라 하였다⁴⁾.

吳師機는 外治法을 행하는 것이 病邪가 침입하는 과정과 순서를 정확히 알아 治療할 곳을 아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한 根據로 먼저 《素門 皮膚論》에서 “風寒與百病之始生也 必先于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于絡脈 絡脈滿則注于經脈 經脈滿則入客于臟腑. 善治者治皮毛 次肌膚 次筋脈 次六腑 次五臟. 治五臟者半死半生也.”라 하여, 外邪의 侵入 과정이 皮膚로 시작되어 深入하고, 皮膚에서 治療하는 것이 가장 좋은 治療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傷寒初起의 頭痛發熱無汗而喘者를 예로 들어서 內治法에서 麻黃湯을 사용해 治皮毛하는데 이는 肺經의 火鬱를 發散하여 皮膚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肺脈은 中焦에서 起始하고 大腸에 絡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肺系는 屬背하고, 무릇 皮膚의 病이 대개 肺로 들어가는데, 背部로부터 얻은 경우에는 더욱 빠르다.”라고 지적하고 麻黃湯을 內服하고 麻黃湯을 抹背하거나 抹中焦하고 兼하여 抹背한다면 治療가 더욱 빠르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風寒이 入肺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침이 나게 한다. 肺의 經絡이 大腸에 絡하고, 또한 肺와 大腸이 表裏 關係이니 肺咳가 그치지 않으면 왕왕 大腸이 사기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東垣의 ‘臟腑咳之藥例’를 참조하여, 藥을 煎湯하여 中焦에 抹하고 겸하여 導法을 사용하면 大腸에 들어가서 升氣하여 肺까지 다다르게 되어 表裏가 兼하여 治療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六經을 근거로 하여 “太陽은 六經의 우두머리이고 皮膚를 主한다. 傷寒이 처음 생길 때는 邪氣가 太陽에 있으니 옛날에는 羌活湯을 사용하였으니 太陽의 表를 解하는 것이다. 背部는 心肺膀胱經이 屬하니 邪氣가 背部에 적중하면 脊強하게 된다. 그러므로 羌活湯을 內服하는 것이 역시 羌活湯으로 擦背하는 것보다 못하다. ... 만약 熱이 膀胱에 있어서 口渴하고 尿赤한 자는 五苓散을 小腹에 貼敷하니, 膀胱은 太陽의 裏이고 小腹 內에 있다. ... 太陽과 少陰은 身體의 뒷부분을 同行하니 背部는 또한 少陰에

屬한다. 仲景의 少陰 表症에 麻黃附子細辛湯이 있으니, 麻黃湯을 煎抹하는 예를 참조할 수 있다. ...”라 하여 각 證과 六經의 部位에 따라 外治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臟腑의 病에 대해서는 “五臟之系는 모두 背部에 있으니 臟腑의 十二俞穴이 모두 背部에 있다. 그 十二俞穴에 모두 邪氣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臟腑病을 대개 背部에서 治療할 수 있다. 몸 앞과 뒤의 募穴과 俞穴 또한 相應하니 心腹의 病에 모두 背部와 兼해서 治療한다.”라 하여 俞穴이 있는 背部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內經》의 經絡에 熟達되고, 또한 先賢들의 內治處方의 用藥之理를 融會하여 이로서 皮膚 肌膚 筋脈 五臟六腑를 外治한다면 治療하는 곳마다 모두 神묘한 效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經絡과 用藥의 意치를 熟知하고 融會貫通하는 것이 곧 外治法의 理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治法에 있어서 吳師機는 《傷寒論》의 重要性을 강조하여, 傷寒을 治療하려면 “三陰三陽과 五臟六腑가 病을 받는 바를 總括할 수 있어야 하고, 寒熱虛實을 볼 수 있어야 하며 汗吐下和解溫補의 모든 治法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傷寒을 治療할 수 있다면, 中風이나 熱病과 雜病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傷寒論》의 根源이 內經에서 나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外治法이 “內者是 內治 外者是 外治이니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들어날 수 없는 것이 없다. 곧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內治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안에 있는 것을 外治할 수 없는 것이 없다. ... 仲景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外治의 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로써 보면 外治法은 眞實로 행할 만한 것이다.”라 하여 外治法의 當연함을 주장하고, 外治法에도 汗吐下 三法과 和解溫補法이 있으니 이를 응용한다면 어떠한 질환이라도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外治法의 總綱과 用膏之法

(1) 外治總綱

吳師機는膏 外의 外治法에 대해서膏 外에 嚔坐 熨抹縛의 五法이 있는데,膏를 보조한다고 하였고, 또한 內經에 根據를 둔 것임을 밝혔다.嚔法은“經言 氣出于腦也 上之也 又因其輕而揚之也 又高者因而越之也”,坐法은“經言可導而下也 下之也 又因其重而減之也 又下者引而竭之也”,炒熨煎抹縛法은“經之炙巾 漬水也 曰熨曰浴曰按也 又薄之 劫之也 開之發之也 又察陰陽所在而調之也 又因其衰而彰之也 又中滿者 瀉之于內 實者瀉之虛者補之也.”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外治法의 總綱에 대해서 실로 外治의 活法이니,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먼저 三部와 六經의 경우는 病의 位置임과 동시에 施治의 位置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로 五鬱六鬱과 升降清濁의 경우는 病機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治療의 機轉에 대한 說明이다. 또한 參古鍼灸法하는 것은 鍼灸가 이미 오랫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축적한 經絡과 經穴 그리고 다양한 鍼灸理論을 外治法에 응용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① 分三部

吳師機는 먼저 “人一身有 上中下三部 而皆以氣爲貫.”이라하며,嚔法은 泄肺하고 上焦之霧를 散하고 通天氣하여 宗氣를 열어 呼吸을 행하고,坐法은 瀉腎하고 下焦之瀆을 決하고 通地氣하여 衛氣를 流行하여 司開闔한다고 하였고,炒熨煎抹縛之法은 理脾胃하고 中焦之滯를 疏하고 通天氣地氣하여 營氣를 蒸騰하여 化精微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의 몸은 縱으로 말하면 上中下의 三部가 되고 橫으로 말하면 表 裏 半表半裏의 三部가 된다.”고하여 嚔法은 治上 治表하고,坐法은 治下 治裏하고,炒熨煎抹縛之法은 治中 治表裏與半表裏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의 여러 治法은 모두 三部로 나누거나 高下와 中外를 습하거나 遠近과 輕重을 고려하거나 하여서 치료할 수 있다. ‘適其所’ 또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約六經

吳師機는 “사람에게는 하루 동안 十二經脈이 각기 起止하니 이로서 百病이 居處하게 되고, 生死가 決定된다.”고 하여, 모든 病의 關鍵이 이 六經에 있다고 하였다.嚔法은 開하고 在上在表하여 宣發陰陽之氣하고,坐法은 闔하니 在下在裏하여 收斂陰陽之氣하고,炒熨煎抹縛之法은 樞하니 在中兼表裏하여 轉運陰陽之氣한다고 하였다. 특히 “炒熨煎抹을 하는 것은 寒熱을 따지지 않고 마땅히 이러한 樞와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니, 樞가 利하게 되면 開闔이 모두 그 마땅한 바를 얻게 된다. 臍中央을 神厥이라고하고, 兩傍을 天樞라하니, 縛臍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③ 察五鬱六鬱

吳師機는 “百病皆生于鬱”이라고하고 五鬱이 “木鬱 達之 火鬱 發之 土鬱 奪之 金鬱 泄之 水鬱 折之”니,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그 鬱氣를 꺾고 그 化源을 滋養하고, 그 運氣를 누르고 그 不勝하는 것을 돕지만 過暴하게 하여 질병을 생기게 하지 말아야한다. 이것이 內經의 五鬱을 치료하는 法이다.”라 하였다. 六鬱은 氣 血 濕 火 食 痰이고 또한 이것이 積聚 癥瘕 疝癖의 根本이라하였다.嚔法은 達之 發之 泄之하니 木 火 金의 鬱을 풀고,坐法은 奪之 折之하여 土 水의 鬱을 풀고,炒熨煎抹縛之法은 抑止 扶之하니 五鬱之氣를 끊고 資化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六鬱之病은 마땅히 行氣 活血 燥濕 清火 化痰 消食 和中 健脾하여야 하고, 積聚도 같다고 하였다.

④ 升降清濁以和陰陽

吳師機는 “병은 清不升하고 濁不降하여 陰陽이 不和함으로 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嚔法은 “升清할 수 있으니, 清氣가 升하게 되면 陽이 이에 上에서 壅滯하지 않고 下陷하게 되니, 降하지 않으면 升 또한 없다. 또 嚔法은 濁氣를 上에서 下로 내릴 수 있다. 또 上竅가 열리게 되면, 下竅 또한 利하게 된다.”하고,坐法은 “降濁할 수 있으니, 濁氣가

降하게 되면 陰이 이에 下에서 結하지 않고 上으로 干하게 되니, 升하지 않고는 降할 수 없다. 또한 坐法은 淸氣를 下에서 上으로 올릴 수 있다. 또 下竅가 利하게 되면, 上竅 또한 열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炒熨煎抹縛之法은 “升降變化할 수 있으니, 分淸濁하고 理陰陽한다. 營衛氣가 通하고, 五臟과 腸胃가 조화롭게 되니, 九竅가 모두 順하게 되고 더불어 腠理에 달하고 四肢에 行한다.”고 하였다.

⑤ 參古鍼灸法以知上下左右前後之所取

吳師機는 鍼灸之法이 “鍼灸의 法은 위로는 頭面 胸喉를 取하고, 아래로는 少腹脛足을 取한다. 氣反한 경우는 病이 위에 있으면 아래를 取하고, 病이 아래에 있으면 위를 取하며, 病이 中에 있으면 傍을 취한다. 陽部位를 취하여 陰部位의 病을 치료하고, 陰部位를 취하여서 陽部位의 病을 치료한다. 右를 취하여 左를 치료하고, 左를 취하여 右를 치료한다. 앞에는 背가 있고 뒤에는 등이 있으니, 背는 陰이요 등은 陽이며, 募穴은 陰에 있고 俞穴은 陽에 있다. 陰病은 行陽하니 俞穴을 치료하고, 陽病은 行陰하니 募穴을 치료한다. 督脈은 脊椎를 順행하고, 任脈은 胞에서 起始하며, 衝脈은 臍를 끼고서 直行하며, 帶脈은 허리를 따라 橫束한다. 督脈을 치료하는 것은 脊椎에 있고, 任脈을 치료하는 것은 胞에 있으며, 衝脈을 치료하는 것은 臍下에 있으며, 帶脈을 치료하는 것은 腰間에 있다.”한다 하고, 噫法은 上을 취하는 것이고, 또한 上을 취하여 下를 치료하는 것이며, 坐法은 下를 취하는 것이고, 또한 下를 취하여 上을 치료하는 것이며, 炒熨煎抹縛之法은 “中을 취하는 것이고, 또한 旁을 취하여 中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外治法이 鍼灸에서 取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역시 鍼灸와 并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2) 用膏之法

吳師機는 膏를 사용하는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膏를 使用하는 法에 대해서는 《理論駢文》의 各論과 各各의 膏

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 이에 대한 深度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① 審陰陽

病因의 陰陽을 구분하여 犯賊風虛邪者는 淸陽膏를, 飲食不節 起居不時者는 金仙膏를 사용하고, 그리고 外邪의 陰陽을 구분하여 傷于風者는 上先受之하니 淸陽膏를, 極則下行하면 行水膏를, 傷于濕者는 下先受之하니 行水膏를, 極則上行하면 淸陽膏를 사용하였다. 惡寒의 陰陽을 구분하여 發熱惡寒者는 淸陽膏와 金仙膏를, 無熱惡寒者는 散陰膏와 金仙膏를 사용하였고, 內外와 寒熱의 陰陽을 구분하여 陽盛生外熱에는 淸陽膏를, 陰盛生內寒에는 散陰膏를, 陽虛生外寒에는 扶陽膏를, 陰虛生內熱에는 滋陰膏를, 諸熱之而寒者는 扶陽膏를, 諸寒之而熱者는 滋陰膏를 사용하였다.

② 察四時五行

四時를 구분하여, 冬傷于寒하면 春必病溫하니 淸陽 滋陰膏를, 春傷于風하면 夏生飧泄하니 金仙膏를, 夏傷于暑하면 秋必痲瘡하니 역시 金仙膏를, 陽瘡에는 淸陽 滋陰膏를, 陰瘡에는 散陰 扶陽膏를, 秋傷于濕하면 冬必咳嗽하니, 熱嗽에는 淸肺膏를, 寒嗽에는 溫肺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五行을 구분하여 春多風木之病하니 淸陽膏 淸肝膏 淸肺膏 滋陰膏를, 夏多熱火之病하니 淸陽膏 淸心膏 淸肝膏 淸肺膏 滋陰膏를, 長夏多濕土之病하니 淸陽膏 行水膏 金仙膏 健脾膏를, 秋多燥金之病하니 淸肺膏 淸胃膏 淸心膏 滋陰膏를, 冬多寒水之病하니 溫肺膏 溫胃膏 散陰膏 溫腎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③ 求病機

病機에 있어서는 《素門 至眞要大論》의 病機十九條를 인용하여, 諸風掉眩皆屬于肝하니 淸肝 淸陽 滋陰膏를, 諸氣臃鬱皆屬于肺하니 淸肺 金仙膏를, 諸濕腫滿皆屬于脾하니 健脾 金仙 行水膏를, 諸寒收引皆屬于腎 溫腎 散陰膏를, 諸痛痒瘡皆屬于心하니 淸

陽 雲台 行水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 病機十九條 중에 火가 다섯, 熱이 넷인 것을 風寒暑濕이 모두 化火化熱한다고 하였고, 劉河間의 原病式에 대해서는 “然但言盛氣實邪 未及于虛.”라 하였다.

④ 度病情

病情은 《難經 四十九難》을 인용하여, 憂愁思慮하면 傷心하니 養心膏를, 形寒飲冷하면 傷肺하니 溫肺膏를, 悲怒氣逆하여 上而不下하면 傷肝하니 清肝金仙 散陰 滋陰膏를, 飲食勞倦하면 傷脾하니 健脾膏를, 強力入房하면 傷腎하니 水虧者는 滋陰膏를, 火虧者는 扶陽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⑤ 辨病形

臟病의 경우 肝病은 清肝 清陽 金仙 養心 滋陰膏를 사용하고, 心病은 實에는 清心, 虛에는 養心膏를, 그리고 肺肝脾腎膏를 더불어 사용하고, 脾病은 熱에는 行水, 寒에는 金仙 散陰 健脾膏를 사용하고, 肺病은 熱에는 清陽 清胃 清肺膏와 清肝 滋陰 健脾膏를 사용하고, 腎病은 陰虛에는 滋陰, 陽虛에는 扶陽膏를, 行水 健脾 散陰 清心 養心 清肝 清肺膏 더불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腑病의 경우 胃病은 熱에는 清胃, 寒에는 溫胃 金仙 健胃膏를 사용하고, 大腸病은 熱에는 清胃 清肺, 寒에는 金仙 健脾膏를 사용하고, 小腸病은 熱에는 行水, 寒에는 金仙 散陰膏를 사용하고, 三焦病은 行水 金仙膏를, 虛하면 健脾 散陰膏를 사용하고, 膀胱病은 行水 金仙膏를, 冷結에는 散陰膏를 사용하고, 膽病은 清肝 清胃膏를, 虛하면 養心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五臟六腑의 寒熱이 서로 전변된 것은 마땅히 그 본래 시작한 것을 구한 후에 用藥하고, 病이 臟腑가 兼해있는 것은 臟腑를 나누어서 치료한다고 하였다.

婦人病의 경우는 調經期하고 護胎產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清肺 養心膏를 사용하고 他症을 겸한 경우는 清肝 清胃 清心 滋陰 健脾 金仙 行水膏 더불어 사용한다고 하였다. 生理에 관해서는 痛經에는 金仙

膏에 加藥하여 사용하고, 血寒經閉에는 通經膏를, 不調한 경우는 通經膏와 安胎膏 各半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崩漏의 경우는 滋陰 固經膏를 사용하고, 子宮이 冷하면 散陰 扶陽膏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產婦에 관해서는 胎不安하면 安胎膏를, 產後에는 衛產膏사용한다고 하였다. 乳房疾患에 관해서는 乳病에 陽毒紅腫熱痛者는 清陽膏를, 欲潰者는 雲台膏를 사용하고, 半陰半陽核塊의 初起에는 金仙膏를, 已破한 경우는 雲台膏를 사용하고, 陰症에 不紅腫熱痛者는 散陰膏를, 乳巖已破者는 護巖膏를 사용하고 楂積하여 糝藥 敷藥을 가하라고 하였다.

고찰

한의학에서 外治法은 鍼灸와 최근의 推拿療法을 제외하고 藥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內治法의 보조적인 치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外治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外治法이 가지는 편리함과 경제적인 측면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또한 양약에 비해 불편한 한약의 복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外治法에 대해서 溫故知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吳 師機는 오랜 임상 기간 동안에 外治法만을 사용하여 치료에 임했고, 또한 이런 경험을 토대로 《理滄駢文》을 저술하였다. 《理滄駢文》 중의 〈續增略言〉은 저술한 시기나 篇名, 그리고 저술동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外治法에 대한 견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吳 師機는 〈續增略言〉을 통해 먼저 자신이 外治法을 사용한 배경과 外治法을 행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外治法의 근거에 대해서 선현의 법을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였고, 자신의 外治法에 대해서, 膏와 膏 外의 外治法으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하고, 用膏之法과 外治總綱을 통해 이를 정리하였다.

먼저 吳師機는 자신이 外治法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外治法을 행하는 道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吳師機는 醫의 어려움이 臟腑를 볼 수 없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대충 치료하여 자신과 남을 속인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內治法의 高醫를 崇尚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미치지 못하여 內治를 포기하였고, 또한 誤治의 危險性 때문에 外治法을 고집하였음을 밝혔다. 이런 이유로 그는 內治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誤治가 많고, 誤治로 인한 危險性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리고 吳師機는 이러한 內治法에 비해 外治法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吳師機는 外治法을 행하는 道가 비록 內外가 나뉘지만 책을 읽어서 이치를 밝히는 것은 하나라 하고, 外治에 능통하기 위해서는 外治와 內治를 貫通하는 醫理에 밝아야 하며, 또한 先賢들의 경험을 숙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바탕에서 良醫가 되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도가 內治法의 부족한 부분을 外治法이 보충할 수 있도록 법을 전해줌에 있으니 內治를 하는 者と 外治를 하는 者가 서로 험뜯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吳師機는 外治法의 根據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먼저 外治法이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료의 수단임을 지적하였다. 그런 의미로 먹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치를 할 수 있는 수단임을 설명하고, 기온의 변화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이나, 音樂을 듣고 꽃을 보는 것 등이 모두 외치라하였다. 그리고 노인 소아 부인에게 있어서나, 응급질환에서 外治法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존재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吳師機는 外治法을 행하는 근거가 內經과 傷寒論임을 지적하였다. 吳師機는 外治法이 病邪가 侵入하는 過程과 順序를 정확히 하여 치료할 곳을 아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內經과 傷寒論을 근거로 外治法이 皮膚와 六經에 배속된 부위와 背部 俞穴과

腹部 募穴 등을 응용함을 설명하였고, 經絡과 用藥의 이치를 숙지하고 融會貫通하는 것이 곧 外治法의 이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치법에 있어서 吳師機는 傷寒論이 중요하고, 傷寒論의 治法이 또한 內經에서 비롯되었고, 外治法의 치법 역시 內經과 傷寒論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外治法이 행할 만한 것이고, 또한 內經과 傷寒論의 汗吐下 三法과 和解 溫補法을 통해 外治法을 한다면 어떠한 질환이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吳師機는 外治法이 溫故知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런 의미로 吳師機는 자신은 前賢들이傳한 것은 존중하고 따랐으나 外治法이 前賢들이 전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可히 變通한다고 하여, 湯液과 鍼灸는 變하지도 通하지도 못하였는데, 膏藥이 과거에 어긋나지 않고 현재에 이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吳師機는 자신의 外治法에 대해서, 膏와 膏 外의 外治法으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吳師機는 자신의 外治法을 膏와 膏의 形態로 加工된 것 외의 藥으로 나뉜다고 밝히고, 임상에서 膏는 주로 삼고, 藥은 輔助로 삼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가 임상에서 시술한 外治法의 형태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膏는 劑型이 완성되어있기 때문에 臨床에서 치료에 있어서 편리함이 크지만, 다양한 증상의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형으로 이용이 가능한 膏 外의 外治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膏와 膏 이외의 外治法의 主와 輔助 개념은 治療의 效果 면에서가 아니라, 臨床에서 시술의 편리함과 膏를 중심에 놓고 진료한 吳師機의 기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는 膏나 藥이 독자적으로 혹은 并用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 하였다.

吳師機는 膏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먼저 膏의 作用에 대해서 먼저 病의 結聚之處와 病의 經由之處를 파악하여야 하고, 膏가 정확한 곳에 작용하여 전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말하여, 膏의 작용이

膏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 뿐 아니라 치료하는 부위의 정확성과 더불어 병리의 이해와 진단의 정확성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膏의 用藥과 制膏法에 대해서는 膏가 “主通治, 統六經, 用藥百病一方, 月才一合, 故其數廣而多.”라 하였고, 그리고 制膏法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膏를 학습하였던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原方을 따라서 膏를 만들다가 外治法과 內治法이 같은 이치임을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方을 넓혀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규칙을 따라 약을 統括하였고, 여기에 引藥을 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膏의 通治하는 用藥과 制膏法 特性에 대해서 그는 〈略言〉에서 病을 통괄할 수 있듯이 藥 또한 통괄할 수 있으니, 制膏藥하는 것은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라 하여, 理致通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吳師機는 用膏之法이라 하여, 審陰陽, 察四時五行, 求病機, 度病情, 辨病形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膏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膏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理滄駢文》의 各論과 各各의 膏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吳師機는 膏 外의 外治法에 대해서 三焦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膏 外의 外治法의 理致가 內服藥과 相通하고, 氣로서 相感하는 것이므로 또한 外治에 속한다고 하여, 그는 上焦에는 주로 噴法을, 中焦에는 주로 縛法과 熨法을, 下焦에는 주로 坐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총괄하여 비록 上中下 三焦로 治療를 部位에 따라 나누었으나 部位에 局限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뒤에 外治總綱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였다. 또한 吳師機는 內服處方을 膏 外의 外治法에 사용할 수 있으며, 內治와 外治의 理致가 같기 때문에 어떠한 內服處方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膏와 并行하는 것에도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吳師機는 鍼灸按摩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鍼灸按

摩는 禁忌가 많기 때문에, 炒熨煎抹之法으로 대신할 수 있고, 오히려 우수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外治法을 鍼灸理論에 비추어 응용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았음을 설명하였다.

吳師機는 膏 外의 外治法에 대해서 外治總綱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三部와 六經을 통해 病의 位置와 동시에 施治의 位置에 대해 설명하였고, 두 번째로 五鬱六鬱과 升降清濁을 통해 病機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治療의 機轉에 대해 說明하였다. 또한 古 鍼灸法을 參考한다고 하여 鍼灸가 이미 오랫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축적한 經絡과 經穴 그리고 다양한 鍼灸理論을 外治法에 응용함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續增略言〉을 통해 吳師機의 外治法에 대해 살펴보았다. 吳師機는 오직 膏와 膏 外의 外治法을 통해 치료에 임하였고, 이러한 外治法이 內治法의 이치와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先賢의 法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경지를 闡發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思考를 통하여 外治法을 국소적인 치료에 국한시키지 말고 치료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제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鍼灸經絡學說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언급한 內治法의 문제점이나 外治를 행하는 도를 통해 지금의 진료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吳師機의 外治法이 현재의 상황에서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內治와 外治를 貫通하는 理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그의 경험과 노력이 溫故知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外治法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理滄駢文》의 各論에 대해 臨床과 연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1. 〈續增略言〉은 吳師機가 《理滄駢文》의 出刊 후 부족한 부분을 補完하고 根據를 提示하여

敷衍하기 위해 著述하여 마지막에 덧붙인 글이다.

2. 吳師機는 자신이 內治法의 어려움과 문제점, 誤治의 危險性 때문에 外治法을 선택하게 되었고, 外治法을 행하기 위해서는 外治와 內治를 貫通하는 醫理에 밝아야 하며, 또한 先賢들의 經驗을 熟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吳師機는 外治法이 內經과 傷寒論에서 비롯되었고, 用藥과 治法 또한 그러함을 밝혔다.
4. 吳師機는 자신의 外治法에 대해서, 膏와 膏 外의 外治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用膏之法과 外治總綱을 통해 이를 정리하였다.

참고 문헌

1. 買一江.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1;4-6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東洋醫學研究院. 1984; 332.
3. 全宰弘·金賢兒.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理滄駢文》중 《略言》을 中心으로 大韓 外官科學會誌. 1999.2(1);270-271.
4. 吳師機. 理滄駢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6,9-10